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업무계획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요약)

① 농어업 경영혁신 및 농어가 소득 증대

-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농어가 경영장부 기장을 제고 등 비용절감 운동 전개

※ 2010년 비용절감 목표

- 맞춤형 비료 지원 등으로 비료비 1,000억원(11%) 절감
- 한우 출하월령 단축(30개월 ⇒ 27개월), 돼지 MSY(모돈 당 시장출하두수) 향상(14.8두 ⇒ 17두) 등으로 사료비 4,600억원(6%) 절감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역난방·목재펠릿 등 신재생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1,000억원(4.7%) 절감

- 품목 대표조직 육성(28개), 유통시설 규모화 및 간척지에 농어업단지 개발

- RPC 등 산지유통시설 규모화 및 운영 효율화방안 마련 등

② 농어업의 체질개선 및 미래준비 본격 추진

- 종자산업과 생명산업 본격 육성
 - 방사선돌연변이육종센터(2010~2012), 곤충산업육성법 시행(9월) 등
- 어업구조조정과 수산생명자원 조성·관리 강화로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 어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9월) 등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조기 개편을 위해 농협법 개정안 2월 국회 통과 추진

- 법 통과 후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준비, 정부지원방안 마련 등
- 수협 운영구조 개편(2월 수협법 개정), 부실수협 통합 폐합 등 본격화

③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추진

- 안전 농식품 공급

- 고독성농약 단계적 감축(2010년 3종, 2011년 9종 사용금지) 및 축산항생제 사료첨가 금지(2011년 하반기부터, 9종)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도입(12월)
- 농식품 검역·검사 통합조직 출범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식물검역원 +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

- 쌀가루 10% 프로젝트를 추진, 밀가루를 대체하여 가공용 쌀 수요 20만톤 증대
- ※ 시설투자 400억원 지원, 밀가루 제분업체의 쌀가루 시장 참여 확대
- 콩·조식료 등 농작물 다양화방안 마련
- 선물거래 시범사업,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2010~2011년)

- 식품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 막걸리, 천일염 등 전통식품 산업화 추진

- 한식재단 2월 출범, G20 정상회담을 한식세계화 계기로 활용
- * G20 정상회담에 맞춰 G20 추천 메뉴 20선 개발, 아름다운 농산어촌 20곳 선정 추진
- 해외 자원개발 및 협력을 통한 국격제고
 -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
 - (곡물) 6개국 16개 기업을 통해 20만톤 공급망 확보
 - * (2009) 러시아, 브라질,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 (2010) 1개국 추가
 - (수산) 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 구성, 참치가 공공장 공동개발
 - (산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2만ha 조림(총 40만 ha 대상)
 - 해외협력 확대를 통한 국격제고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국제곡물이사회(IGC) 소속 식량원조위원회(Food Aid Committee) 가입 검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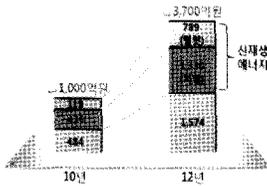
④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 공동체 자율 자원관리, 복지·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2012년까지 지역 공동 경영체 200개 육성
 - * 마을어업회사(50개), 마을영농회사(100개), 농어촌형 공동체회사(50개)
-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등 생산기반 확충
 - 다목적 저수지(67개소) 개발 및 둑 높이기(60개소) 착공
 - 새만금 방조제 완공(4월), 방수제 착공(7월)
- 농식품분야 민간투자기반 확충
 -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2010년 예산안 600억원) 등 민간투자유치 강화
 - 농림수산식품분야 신규 일자리 29천개 창출

1. 비용절감·경영혁신

- 2010년을 “농어업경영비 절감의 원년”으로 선포
 - 경영혁신의 기초가 되는 경영장부 기장 확산
 - 현재 5% 미만 수준인 농가기장 비율을 2012년까지 20%까지 확대
 - 품목별로 선진국 수준의 전국단위 전문실습장 구축
 - 원예(경남 진주 ATEC), 축산(전남대, 천안 연암대) 등
- 「비용절감운동본부」와 지역단위 「농어업 경영혁신단」을 설립, 추진동력 확보
 - 비용절감운동본부는 품목조직, 농수협, 컨설팅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사례 발굴·전파, 농어가 기장(記帳) 및 전산화 운동, 평가·환류 등 담당
 - 비용절감운동의 현장보급을 위해 품목별 지역리더 등으로 구성되는 「농어업경영혁신단」 설립

- 2010년 사료비 6% (4,600억원), 비료비 11% (1,000억원) 절감
 - 사료비 절감
 - (돼지) 질병근절로 MSY(모돈당 시장출하두수) 2.2두 향상
 - (한우) 출하시기 3개월 단축(30개월령 ⇒ 27개월령) 및 등급판정기준(근내 지방도 등) 개편, 조사료 생산 확대(4,110천톤 ⇒ 4,400천톤)로 배합사료 대체
 - (육계) 사료효율이 높은 2.5kg 이상 대형 닭 생산 확대
 - 비료비 절감
 - 맞춤형 비료 지원을 도입, 화학비료 사용량 108천톤 감축(1,108천톤 ⇒ 1,000천톤) 감축 및 비료비 11% 절감(9,134억원 ⇒ 8,090억원)
 - 에너지 절감
 - 에너지 절감 시스템 보급
 - 중·소규모 온실 700ha에 다겹보온커튼 등 보급
 - * 에너지 절감율(%) : 열회수형 환기장치(50%), 다겹보온커튼(46%)



-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 (66% 절감), 노후어선 저효율기관 교체(1만마력) 및 근해어선 감척(194척)
- 신재생에너지 보급
 - 대규모·자동화 온실 250ha에 지열난방 보급, 난방비용 73% 절감
 - 중·소규모 온실 160ha 및 농가주택 4천호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누적)

구분		2009년까지	2010년	2012년
에너지 절감 시스템	에너지절감시설(ha)	4,682(33%)	5,382(38)	6,964(50)
	고효율LED(척)	217(3.2%)	434(6.4)	868(12.9)
	노후어선 기관교체(마력)	1만(0.6)	2만(1.2)	4만(2.4)
	근해어선 감척사업(척)	567(15.7%)	761(21.0)	1,280(35.8)
신재생 에너지	지열난방ha, 대규모온실	91(1.4%)	341(5.4)	857(13.6)
	목재펠릿 중·소규모온실(ha)	-	160(2.1)	1,164(15.1)
	주택(전호)	3(2.1%)	7(4.9)	39(27.3)

2. 농수산업 규모화·전문화

□ 간척농지를 중심으로 규모화된 미래형 농어업단지 조성

- 간척지를 사전계획 하에 경종, 축산, 첨단 유리 온실, 물류단지, 교육·체험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농어업단지로 복합 개발
 - 단지지정·관리 지침 마련 및 법률 제정 추진
 - ※ 향후 2018년까지 약 3만ha 간척지를 농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 : 새만금(8,570ha), 영산강(7,049ha), 화옹(4,482ha), 기태(7개 지구 9,778ha)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10ha)을 연내 추진하고,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영산강지구 등)도 전개지속 추진
 - 간척지내 기반시설은 정부지원, 생산시설 등은 민

간투자유치

□ 2009년까지 설립된 대표조직(28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초기단계 대표조직에 운영자금 지원(2010년 : 30억원), 향후 조직화 정도에 따라 자조금 조성, 수급조절 등의 권한과 책임이양
- 주요정책 수립시 대표조직과 정부간 상시협의 체계 구축

대표조직 현황

농산물(16 품목)	축산물(6)	수산물(6)
쌀, 감귤, 백합, 단감, 사과, 배, 인삼, 배추, 버섯, 딸기, 마늘, 토마토, 양파, 고추, 포도, 파프리카	한우, 양돈, 계란, 오리, 양봉, 우유	넙치, 김, 전복, 멸치, 고등어, 오징어

□ 농산물 유통시설을 효율화하여 유통의 질 제고

- RPC는 광역단위(2개 시·군 이상)로 통합, 소규모·부실 RPC는 퇴출 유도
- LPC·APC 등은 평가·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동률 제고

3. 종자·생명산업 육성

□ 종자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을 조성

- 종자산업 R&D 투자를 분자유종, 수출전용·수입대체 품종 개발 등 중점분야에 집중하고, 관련연구를 통합 조정
 - ※ 품종개발 R&D 확대 : (2009) 542억원 ⇒ (2010) 600억원 ⇒ (2012) 682억원
- 민간의 품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육종기술지원센터(기초·선행기술 및 경영컨설팅), 민간육종연구단지(연구실·시험장비 임대), 방사선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운영

□ 우수 종축·수산종묘 공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

- 우수 종축시설 인증제 도입, 한국형 종축 선발 체계 구축으로 유전자원 자립기반 구축
- 2012년 수산종묘 품종보호권 설정에 대비, 육성·내병성 품종 개발 및 수출기반 조성

□ 곤충, 애완·관상용 동·식물자원 산업화 및 기

초소재 개발연구 강화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관련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지원
- 동식물 자원에서 기능성 물질 등 생명산업 소재를 개발하는 생명공학 연구 강화
 - ※ 감귤(인공피부), 실크(인공뼈), 곤충(항생물질), 가축(바이오 신약·장기 생산) 등

4. 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 **원양어선 신규건조 등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 원양어선 신규건조(2010년 3척, 2016년까지 40척)
 - 자발적 감척제도 도입 등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 유지
- **참다랑어 외해양식장 조성으로 수산업의 Blue Ocean 개척**
 - 연안 출현 참다랑어를 어획·양식기술 개발 및 제도 마련(6월)
 - 참다랑어 양식어종에 대한 5개년 연구개발(인공종묘 생산, 부어초 등 개발) 지원
 - ※ 지원규모(국비 170억원) : (2010) 30억원 ⇒ (2011) 38억원 ⇒ (2012) 34억원 ⇒ (2013) 34억원 ⇒ (2014) 34억원
 - 친환경 갯벌양식어업 육성, 갯벌굴·해삼 등 전략품목 개발
- **수산생명자원 조성·관리 및 어장환경 보전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전담하는 '수산자원 조성전문법인'을 설립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활용방안 연구
 - 산림 녹화사업에 준하는 대규모 바다 숲 조성(250ha), 충허용어획량(TAC) 운영개선 등으로 수산자원 회복 ⇒ 「신 수산 30대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업 재도약

5. 농·수협 개혁

- **농협법 개정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 중앙회 사업 분리 및 독립법인화(연합회, 경제지주, 금융지주)를 주요 내용으로 농협법을 개정(2월)
 - 연합회는 교육·지도, 산지유통 및 구조개선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
 - 중앙회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개편
 - 신용사업은 규모화·겸업화에 유리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법 공포 1년 후 시행을 목표로 자산실사, 법인별 인력 및 조직 개편방안 마련, 자본금 조달 등 실무작업 진행
 -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방안 마련
- **운영구조개선 및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 실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사업 활성화 본격 추진**
 -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품목조합 등 산지 광역조직 육성·지원
 - 수도권 물류센터 건립 등 도매기능 확충, 유통채널 다각화로 소비지에서의 중앙회 역할 강화
- **수협법 개정 및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중앙회장·부실조합장의 비상임화 등 운영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개정(2월)
 - 중앙회의 조직·인력 10% 감축 및 부실사업장 폐쇄
 - 일선 부실수협(4개)은 2011년까지 통폐합하고, 부실우려 수협은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여 구조조정 지속
 - ※ 부실수협 : 동해시, 삼척, 장흥군, 전남서부어류수협

6. 안전 농식품 공급

-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총 15종 중 산림·검역용 3종 제외) 과 가축 항생제 사료첨가 사용

을 전면 중지

○ 농가사용 고독성 농약(12종) 단계적 중지(2010 : 메타 등 3종, 2011 : 9종)

○ 축산항생제 사료 첨가규정 등 제도개선(2010),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 중지

□ 위해요소 사전예방 시스템 확충

○ 농산물 우수관리(GAP) 대상을 모든 품목으로 확대(기존 105개)

※ GAP : 농산물 생산시 토양·수질, 잔류농약·중금속 등을 관리

○ 축산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를 생산비중 70%로 확대(현행 60%)

○ 수산 HACCP를 192개 양식장(현행 152개소)으로 확대 운영

※ HACCP : 가축의 도축·사육·가공 과정에서 식중독균, 항생제 등을 사전에 관리

□ 수입식고기 유통이력제를 도입하여(12월), 거래 단계별 유통정보 실시간 관리로 사고 발생 시 긴급회수

○ 쌀·김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12월)

※ 현행 : 100㎡이상 음식점

□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산을 통해 소비자 수요에 부응

○ 친환경 광역단지(1,000ha 이상)와 마을단위 친환경 농업지구(10ha)를 기존 1,011개소에서 1,069개로 확대

○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지원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 화학비료 감축계획 : (2009.p) 295kg/ha ⇒ (2010) 275kg/ha ⇒ (2012) 218kg/ha

□ 농림수산식품 검역·검사 통합조직 출범

○ 축산물, 수산물 등 품목별로 분리된 농림수산식품부 검역·검사 관련 3개 소속기관을 통합하여 공통인력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 식품안전 기능강화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국립식물검역원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7. 쌀 수급안정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논농업 다양화 방안 마련

○ 수입에 의존하는 콩·조식료·밀 재배 확대 등 - 농가참여 유도, 수요확대를 위한 수매제·수입량 등 제도개선

○ 간척지를 조사료 재배단지로 활용하고 겨울철 논을 활용한 밀 등의 2모작 생산체계 확산

□ 쌀 가공산업 활성화(쌀가루 10% 프로젝트) 본격 추진

○ 면, 빵, 장류 등 수요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에 시설투자, R&D 등 집중

※ 시설투자 : (2009) 100억원 ⇒ (2010) 400억원

○ 쌀가루 제분산업 확대로 쌀 가공식품 시장 성장 견인

- 밀가루 제분업체의 쌀가루 시장 참여 적극 유도 및 (쌀 + 밀)가루 혼합제품 유통 활성화를 통한 쌀 사용 확대 추진

□ 가격형성 시스템 구축 등 쌀 유통 선진화

○ 지역농협과 RPC 등 도정업체간 사이버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물거래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 소비자 유통업체에 대한 대응력 확보, 물류 규모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추진

- 부실 RPC 퇴출 및 광역단위 RPC 통합, 규모화된 업체의 RPC 신규 진입 등 RPC의 경쟁력 확보 노력 병행

8. 식품산업 활성화

□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개발계획 연내 수립

○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2010.11월)하여, 2011년 착공 추진(2013년 완공 목표)

※ 식품기업(145개), 연구소(10개) 등을 집적, 연 4조원 매출, 22천명 고용 목표(2015)

□ 원산지표시 도입, 품질인증제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술 품질고급화 추진

- 상표권 등 해외권리보호 지원 및 술 주원료의 원산지표시제 도입·품질인증제 확대 등
 - ※ 막걸리 시장 : (2008) 3,000억원 → (2010p) 5,500억원 → (2012p) 1조원
- **천일염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성분은 우수하나, 가격이 1/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천일염의 산업화를 통해 계량드염 수준으로 도약
 - 민간자본 유치 확대, 위생수준 향상, 이력추적 도입 등 추진
 - ※ 성분 : 비만의 주범인 염화나트륨 함량은 낮고, 미네랄은 3배 이상 함유
 - ※ 가격 : kg당 계량드염(54,000원) vs 천일염(1,100원)
- **김치 등 발효식품 연구를 추진할 세계김치연구소 개소(1월)**
 - 발효기술 개발 등을 통해 발효식품 종주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 **G20 정상회담을 한식세계화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활용**
 - G20에 맞춰 간소하고 품격 있는 한식 메뉴를 준비
 - ※ G20 행사 유형별 간소화 메뉴, G20 추천메뉴 20선 등 개발, 아름다운 농산어촌 20곳 선정, 회의기간 중 한식문화행사 추진, 한식당 '맛지도' 제작·배포 등 추진
 - 한식세계화를 전담할 '한식재단' 발족(2월)
 - ※ 한식재단이 한식 홍보, 해외 한식당 인증, 한식당 경영지원 등 추진

9. 해외 자원개발 및 협력강화

- **식량안보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본격 추진**
 - (곡물) 현지 유통거점 확보, 지분참여 등 선진 방식 적극 추진
 - (수산) 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회 구성, 참가 가공공장 등 공동개발
 - (산림) 인니, 캄보디아 40만ha조림 추진

- **교육·훈련위주에서 인력·기술, 인프라 등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 지원 전면 전환**
 - 해외 농림수산협력 총괄시스템을 구축, 관계기관 합동 체계적 지원
 - 1단계(2010) : 농경연 활용, 2단계(2012) : 전담기구 설립
 - 수원국(受援國)의 수요를 고려,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확대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 : (2009) 6개국 → (2010) 10개국
 -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평가·보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가입을 계기로 개도국 지원 확대**
 - 「ASEAN+3 쌀 비축사업」적극 참여(2009.10, 15만톤 비축 약정발표)
 - 세네갈 등 아프리카 연안국에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 및 양식사업 협력
 - 국제곡물이사회 소속 식량원조위원회(Food Aid Committee) 가입 검토
- **국격제고를 위한 주요 국제기구 설립 및 회의 개최**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협정안 채택(2010년), 정식 출범(2011년)
 - OECD 기후변화 수산 워크숍(6월, 부산) 개최 및 FAO 아·태지역 총회(9월, 경주) 등

10. 지역공동경영체 활성화

- **농업비중이 높은 마을단위로 공동영농·판매 등을 수행하는 지역농업법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구심체로 육성(2010년 : 30개소 ⇒ 2012년 : 100개소)**
 - ※ 우리나라 자연마을은 43천개
 - 우수 '쌀 들녘별 경영체' 등을 마을영농회사로 육성
 - ※ 경북 의성 '칠성 쌀 경영체' : 70농가 210ha 규모화 영농, 생산비 25% 절감
 - 정책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주업농과 같은 개념으로 육성

- 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마을어업회사'로 발전(12년 50개소)
 - 어업인·어촌 공동체가 스스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확대(2010 : 840개소 ⇒ 2012 : 1,200개소, 전 어촌계의 60%)
 - 성장기반이 마련된 공동체는 '마을어업회사'로 발전, 자율경영 어업으로 전환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범 성공모델 선정
 - ※ 전남 무안 "탄도만 낙지공동체" : 4개면 13개 어촌계가 결성하여 낙지자원관리, 불법어업 감시, 어장 청소 등 자율관리로 소득 3.3배 증가(2003 : 23백만원 ⇒ 2008 : 76백만원)
- 주민 스스로 복지·고용 등 필요 서비스를 공급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어촌형 공동체 회사 설립(2010년 : 2개소 ⇒ 2012까지 50개소)
 - 농식품형, 도농교류형, 서비스 제공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개발
 - 모델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
 - ※ 고삼농협 "생명농업 지원센터" 지역주민 공동설립,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농작업 대행, 학교급식농산물 배송 등의 사업으로 34명 일자리 창출

11. 4대강·새만금 등 생산기반 확충

- 물부족 시대에 대비, 농업용 저수지 96개소 독을 높여 2.4억㎥의 추가용수 확보
 - 농어촌의 다양한 용수수요에 활용하고, 비영농기에 하천으로 흘려보내 수생태계 보존 및 수질개선에 기여
 - 설계 시 지역 의견 및 특성을 반영, 저수지 수변(水邊)을 명소로 개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 ※ 2009년도 20개소 착공, 2010년도에 60개소 착공 ⇒ 2012년 완공
- 영산강 수질개선과 상습적인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영산호·영암호 배수갑문 및 연락수로 확장 추진
 - 영산호바닥 오염 퇴적물 배출을 위한 「저층수

배제시설)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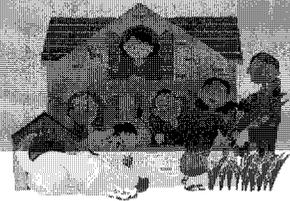
- 어도 등 생태복원 시설과 전망대 등 지역의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조망·관광 등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
 - ※ 2010.4월에 착공하여 용지매수·배수갑문 가물막이 공사 시행
- 4대강 유역 산림의 토석유출 예방과 산림의 수원 함양 가능 증진을 위해 사방사업, 숲 가꾸기, 조림 등 실시
 - 타당성평가 및 실시설계(상반기) 후 착수, 연말까지 완료
 - ※ 주요 사방사업 : 사방담 280개소, 계류보전사업 30km
- 새만금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로 개발
 - 관계부처 합동,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1월)
 - 농업, 관광,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도시 등 종합개발
 - 방조제공사 완공(4월) 및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 착공(7월)
 - ※ 방수제 신규 착공 9개 공구 54km
 - 다기능부지(200ha)를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착수(12월)

12. 농식품 산업 투자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농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 및 외부자본 유치
 - 우수 기업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농수산식품 기업 DB 구축
 -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한 핵심 사업을 선정, 집중 관리
 - ※ 국가식품클러스터, 대규모 농어업회사, 시군 유통회사, 첨단유리온실 등 중점 유치
 -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외자유치 전담반」운영(1/4분기)
-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2010년 예산안 : 600억원),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 2010년 하반기 모태펀드 운용개시를 목표로 상반기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 제정 추진
 - 한우·양돈산업, 천일염, 전복 등을 투자대상으로 우선 검토
-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2010년 신규 일자리 29천 개 창출
 - (직접일자리·공공) 청년 실업난 해소, 저소득층 공공근로, R&D 기술개발 분야에 9,646개 일자리 창출
 - ※ 청년인턴, 행정보조, R&D 기술인력 양성 등(2,530개), 임도사업, 산림복원, 사방산업 등(4,275개), 연안어장 및 내수면 환경 정화 등(1,583개), 한계농지 자원조사, 농가경영정보등록 지원 등(1,258개)
 -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녹색산업기반 조성, 농어촌 지역종합개발 분야에 16,646개 일자리 창출
 - ※ 저수지 뚫 높이기, 영신강하구둑 구조개선, 숲 가꾸기 등(14,405개), 농촌활력증진, 농어촌뉴타운, 도농교류활성화 등(2,241개)
 - (생산/유통기반) 원예 등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건립 등 중장기 사업으로 고용의 질이 높은 분야에 2,711개 일자리 창출
 - ※ 원예생산기반, 바다숲 조성, 가축분뇨처리시설 등(2,504개), 공영도매시장, 시군유통회사, 거점산지유통센터 등(207개)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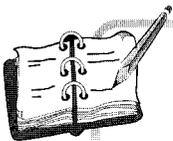
45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5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794@chol.com,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협 : 1394-01-000536 우체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